

# 김태희 “엄마의 마음 알게 된 작품”

tvN '하이바이, 마마!'로 5년만에 복귀  
딸 때문에 삶 포기하는 귀신 엄마 역 맡아  
안정적 연기 펼쳐 시청자들로부터 호평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죽음을 택한다는 게 엄마가 되어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5년 만에 tvN '하이바이, 마마!'로 재회한 배우 김태희(40)는 최근 진행한 드라마 종영 기념 서면인터뷰에서 드라마 결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가 연기한 차유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49일간 인간 세상으로 잠시 환생한다. 삶과 죽음을 두고 고민하던 그는 자신이 살면 하나뿐인 딸이 귀신을 보는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는 사실에 죽음을 택한다. 시청자들 사이에선 이런 차유리의 선택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작품 전체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내 딸, 서우의 미래를 위해 서라면 이미 죽었던 내가 다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어찌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되어본 적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힘들었을 감정일지도 모르지만 순간순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 결국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게 모성애의 위대함이 아닌가 싶어요. '내 딸이 평생 귀신을 보며 위험과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중이 기억하는 김태희의 마지막 작품은 주원과 함께 한 '용팔이'가 마지막이다. 예쁜 미모만큼 유독 연기력 관련 논란이 불거진 그는 당시 작품에서도 논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하이바이, 마마!'에서만

큼은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꼬리표를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눈물을 쏟는 그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를 울렸다.

“우리 드라마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산 사람들 곁을 떠나지 못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시 사람이 되어 벌어지는 판타지인데, 제대로 우리의 입장에 감정입해주고 우리를 응원해준 많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다해 연기한 게 전해진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출연을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연기하겠다는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으려 했어요.”

연기하는 과정에선 “모성애와 가족, 남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중점을 뒀다”면서 “우리의 감정선만 따라가며 연기했고, 그 흐름이 내가 진짜 유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덧붙였다.

“하이바이, 마마!”는 배우 김태희 5년 만의 복귀작이기도 하다. 그는 공백기 5년 동안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38)와의 결혼, 두 아이의 출산을 잇달아 경험하고 대중앞으로 돌아왔다. 이런 경험이 배우 김태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결혼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결혼이 삶의 희로애락의 폭을 한층 더 깊고 크게 만들어준 듯합니다.”

김태희는 당분간 집안일과 육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이바이, 마마!”는 그에게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작품”이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만난 작품이라 모성애에 대해 공감과 이해가 됐어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잘못되면 나 내 책임인 것 같고,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작품입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세상, 오늘' 진행자인 김선균 부국장과 제작진 양복순PD, 편수민PD.(왼쪽부터)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한국PD대상 작품상

cpbc광주가톨릭평화방송(사장 이옥수 신부)정통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이 제32회 한국PD대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함께하는 세상, 오늘'(제작 양복순·편수민PD, 진행 김선균 부국장)이 한국PD연합회가 28일 서울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주최한 제32회 한국PD대상 시상식에서 라디오부문 '지역 정규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1996년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이 개국한 이래 정규프로그램으로는 전국 단위 첫 수상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2018년 광주-전남 민주인문상 특별상 수상과 지난 3월 한국PD연합회 광주전남지부가 선정한 '정규 라디오 프로그램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

번 수상으로 겹경사를 맞았다. 올해로 24번째 진행되고 있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월-금 오후 5시-6시)은 생방송으로 청취자들에게 주요 이슈에 대해 정확한 사실 전달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종교방송으로서 공동선의 관점에서 짚어보는 교회 코너를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인권, 이주민, 사회복지, 통일, 지역이슈 코너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출연진을 구성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제작을 맡고 있는 양복순PD는 “늘 애정어린 마음으로 방송시간에 맞춰 주파수를 고정하고 때로는 문자 참여로 방송에 힘을 실어주시는 애청자들에게 수상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BTS, 코로나에 월드투어 일정 전면 재조정

소속사 “가능한 빨리 팬들 만나도록 노력”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월드투어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팬 커뮤니티 위버스 공지를 통해 “BTS 맵 오브 더 솔 투어”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기존에 안내해 드린 전체 투어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새롭게 일정을 수립하기로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고 팬들에게 전했다.

빅히트는 이번 투어가 전 세계 스태프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공연에는 글로벌 물류 시스템 가동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을 포함해 상황이 다소 개선된 일부 국가, 지역, 도시들이 있지만 이를 근거로 곧바로 투어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느 곳에서 개최하더라도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모이는 방탄소년단의 공연 특성상 국가 간 이동이 크게 제한된 현 상황에서 투어를 재개하는 것도 어렵다”며 “무엇보다 언제 첫 공연의 막을 올릴 수 있을지 지금으로



서는 예측이 불가하다”고 전면 재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빅히트는 “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는 데로 전체 투어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 알려드리겠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가장 빠르게 방탄소년단과 팬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아티스트 활동 공백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빅히트는 “투어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변동사항과 현황을 최대한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향후 더 좋은 공연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이달 서울을 시작으로 ‘맵 오브 더 솔 투어’로 명명한 스타디움 규모 월드투어에 나설 예정이었다. 당초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 총 18개 도시에서 38회기량 공연을 확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지난 2월에 서울 콘서트를 취소하고, 3월에는 북미 투어 일정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 투어 티켓 예매도 한 달가량 연기했다.

빅히트는 앞서 지난달 24일 “일부 국가 및 도시의 경우, 공연을 정상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일부 공연은 취소 혹은 일정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연합뉴스

## 김신영, '주라주라' 발표...트로트 가수 데뷔

방송인 김신영이 부캐(부캐릭터) '둘째이모 김다비'로써 첫 트로트곡 '주라주라'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미디어랩 시소가 28일 밝혔다.

'둘째이모 김다비'는 김신영이 자신의 둘째 이모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로 이 시대 젊은이들을 대신해 쓴소리를 하는 이른바이다.

데뷔곡 '주라주라'는 김신영이 소속사 대표 송은이에게 바치는 헌정곡으로 그가 직접 작사를 맡았다. 김신영은 이전에도 그룹 셀럽파이의 '셀럽이 되고 싶어', '안 본 눈 삽니다' 등을 작사한 바 있다.

'주라주라'는 4박 리듬(4분의 4박자)에서 박다 키드림이 연주되는 리듬)에 리드미컬한 기타 라인이 더해진 노래로 생



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고충과 애환, 비담을 담았다. 다음 달 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b>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b>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앱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b>남문냉동</b>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b>무크 광주세정점</b> 서구 상무대로 773, 세경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b>신신예술의집</b>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b>만福당</b>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b>동양철학원</b>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영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b>김동일쉐프</b>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헌영 ☎ 062)228-1975, 010-9622-8938	<b>우리뷔페</b>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오픈!! 정성과세로운맛으로 보듬어드립니다. (회사·단체 강부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b>개성전통한방삼계탕</b>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b>한성꽃화원</b>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b>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b> 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도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b>초대화랑</b>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b>광명천막기업</b>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지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b>유가네한우곰팡이 광주대인점</b>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은 진한곰팡이맛! 한우맑은곰팡,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b>연아불교용품</b>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 ☎ 061)334-0088	<b>천상일월태주명</b>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b>대성각 중화반점</b> 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b>박당화랑</b>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